



정의의 종 SNU LAW Newslett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년 Vol.10



로스쿨 현장실사와 예비인가명단발표

교육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로스쿨 현장실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본교 법과대학에서도 12월 26일 오전에 실사를 실시하였다. 실사의 내용은 교육목표와 과정, 입학전형, 교원, 학생, 학위 과정, 교육시설 등의 분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사단은 강의실, 교원연구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기숙사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월 4일에 25개교의 예비인가명단을 발표하였고, 오는 9월 최종 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1월 26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기 위한 예비시험을 실시하였으며, 5월 중에 법학적성시험 본시험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6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8월말에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INDEX

2면	법대소식	5면	최종교수의 저작들
3면	교수동정/신간소개	6면	법대초청강연
4면	회갑맞은 최종교수	7면	최고지도자과정



국제학술교류

2007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호문혁 학장, 조국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 조홍식 교수는 미국 워싱턴 대학을 방문하여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이에 근거하여 합동연구 및 출판활동, 교수와 학생의 교환, 정보 공유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호문혁 학장과 김화진 국제부학장, 박정훈 교수는 학술교류차 10월 25일에서 28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 대학을 방문하였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호문혁 학장과 김화진 국제부학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국립 정치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양교는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학술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진과 학생의 교환, 공동 연구와 학술회의, 출판물 및 정보와 자료의 교환 등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대 83학번 홈커밍데이 행사

2007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3학번의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방문 기념행사가 있었다. 오후 3시 반에 정의의 종 타종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후 11시까지 총 8시간 동안 백주년기념관에서의 기념식, 법학도서관 앞에서의 기념촬영, 미술관 견학, 교수회관에서의 우정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세기사 2면



법대 83학번 홈커밍데이 행사

▶1면에서 계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3학번의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방문 기념식 행사는 83학번인 김재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호성 83기 동기회장의 인사와 모교 발전기금 전달, (주)엑슬론 대표 이동왕의 블루투스 무상제공 증서 전달, 위대훈 동기회 부회장의 경과보고, 호문혁 법대학장의 축사, 이재후 법대 동창회장의 격려사, 정중섭 교무부학장의 모교 현황 소개와 83학번들이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 전달 등이 이어졌다. 이후 법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미술관으로 이동해 '절제와 풍요 - 덴마크의 예술과 디자인'을 관람했다.



저녁에는 교수회관에서 우정의 시간이 이어졌다. 은사님들과 함께 축하 케이크를 자른 뒤 식사를 즐기면서 이홍주 동기회 부회장의 사회로 즐거운 대화와 추억을 나누었으며, 식사 후에는 신영일 아나

운서의 사회로 각 반별 장기자랑이 열렸다. 경품 추첨도 있었고, 참석한 모든 동기들에게 티셔츠와 블루투스 등 기념품이 지급되었다.

로스쿨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 더욱 뜻깊었던 이 행사에는 동창생을 기준으로 15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모교 은사님들도 총 18분께서 참석하셨다.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낸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이 기금은 법학도서관 증축 공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기천교수 기념사업활동



월송 유기천(1915-1998) 교수가 1998년 서거한 이후, '유기천교수추모문집발간위원회'가 조직되었다가 '유기천교수기념사업회'로 확대 발전되었고 재단법인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은 매년 월송기념강좌를 개최하고 학술연구지원사업, 장학사업, 출판사업을 지원하며 기록보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재단에서는 2006년 말, <월송회보>를 창간하였고, 2007년 11월 16일 제 2호를 발간하였다. 2호에는 최종교 교수의 '유럽에서 생각한 월송과 실빙'(Helen Silving), 이신범 전의원의 '나의 반독재운동과 유기천', 유기천 교수와 실빙 여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 등이 실려 있다. 특히 하버드 엔칭연구소에서 새로 발견된 유기천과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과의 편지들은 유기천이 1972년부터 미국에서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독재투쟁을 벌여온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재단에서는 이 방면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수동정



[정종섭 교수]

정종섭 교수는 2007년 10월 창립한 국가정보화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국가정보화회의는 각종 안보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보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로서, 정보화 추세에 따라 국가정보학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전문 연구자들의 발의로 설립되었다. 정보화회의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적 자문과 정보학 분야에 대한 독립적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세미나, 국제교류, 출판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봉경 교수]

최봉경 교수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미국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Boalt Hall, School of Law a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올해 7월말까지로 예정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영미계약법상의 신뢰이익의 개념'이라는 주제로 연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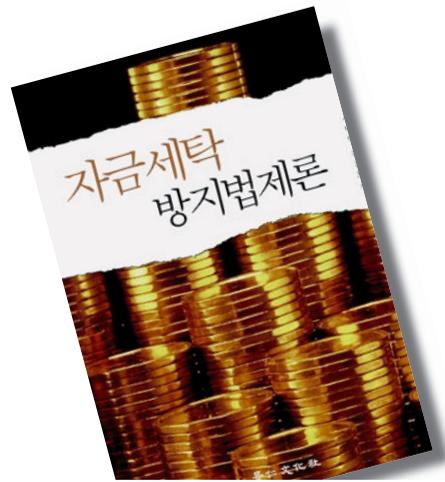
신간소개



● 민법논고 1(재산법1)

윤진수, 민법논고1(재산법1), 박영사, 2007.11

〈민법논고〉 시리즈는 저자가 2007년 상반기까지 저술하였던 민법에 관한 글들을 한데 묶어 발간하는 책이다. 〈민법논고〉는 제1권부터 5권까지 각각 민법일반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민법논고1(재산법1)〉은 그 중 제1권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의 상당수는 저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쓴 것들이며 그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과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처리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해설도 포함되어 있다.



● 자금세탁방지법제론

성낙인, 권건보, 자금방지세탁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9

〈자금세탁방지법제론〉에서 저자는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금세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거래보고의 기준금액, 계좌추적권, 고객주의의무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회갑 맞은 최종고 교수

지난 11월 16일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최종고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봉정식과 출판기념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jur.)학위를 받고, 귀국후 법과대학에서 1981년부터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현재에 교수로 27년간 봉직하고 있다.



서는 초빙교수로 비교법철학을 강의한 바도 있다. 내년에는 연구원으로 프라이부르그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철학과 한국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최종고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봉정 및 출판기념회'에서는 후학들이 만든 기념논문집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민속원)을 봉정하고 최종고 교수의 신작 '한국의 법률가'(서울대 출판부), '한국의 법학자'(서울대 출판부)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덧붙여 최종고 교수가 지금까지 출간한 저

최교수는 법철학, 법사상사, 법제사 등 법학 외에도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40여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학통론(박영사), 법사상사(박영사), 서양법제사(박영사), 법철학(박영사) 등 법학서를 비롯하여 법과 윤리(경세원),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아가넷), 신서유견문(웅진), 괴테와 다산, 통하다(추수밭) 등의 일반교양서가 있다.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삼영사), 서양인이 본 한국법속(교육과학사) 등 번역서도 10권에 이른다.

작물 59권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그린 그림의 전시회도 진행되었다. 최 교수는 세계 각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괴테의 생가, 다산의 유적지 등을 그린 10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최 교수는 예전부터 시와 미술 등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5년에는 '법과 미술'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회갑기념으로 낸 시집 '시 쓰는 법학자'(관악)에는 80편의 시와 함께 손수 그린 삽화가 들어있다.

이처럼 최 교수는 방대한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는데 힘쓰는 가운데서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학회 및 연구활동을 전개하여왔다. 한국법사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법사학회와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한국학회, 한국인물전기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버클리대, 하버드대, 하와이대에서 방문교수와 교환교수로 있었으며, 하와이대와 듀크대에

최교수는 이번 회갑기념행사를 마치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축하와 도움을 감사하면서, 언론보도 등 일체의 자료를 묶어 '최종고교수 회갑기념자료집(관악)'으로 발간하여 답례하였다. 이러한 법대의 학문전통은 로스쿨 논의로 분분한 한국법학계와 법대문화에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으로 계승되어 갈 것이다.

최종고 교수의 저작들

[한국의 법학자]

최종고 교수의 '한국의 법학자'(서울대 출판부) 증보 개정판이 나왔다. 이 책은 근대적 의미의 법학을 받아들이고 해방 후에는 한국 법학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한국의 법학자 1세대의 업적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1세대 법학자 중 작고한 법학자 31인을 선별하여 그들의 살아온 길과 공적을 다루었다.



[한국의 법률가]

최종고 교수의 '한국의 법률가'(서울대학교 출판부)가 출간되었다. 최 교수는 한국의 법률가와 법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의 법학자'(1989,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법률가상'(1995, 길안사)을 비롯하여 단행본 전기나 잡지에 글을 연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책은 작고한 한국의 법률가 34인을 선별하여 다루고 있다.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靑里 최종고 교수의 환갑을 기념하여 최종고 교수 환갑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가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이라는 축하논문집을 발간했다. 도서출판 민속원에서 간행한 이 책에는 일제 하의 법과 사회(이철우), 大韓帝國期牧場土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이종길),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심희기),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 豫審終結決定書의 분석(정금식), 制憲에 관한 연구(김창록),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정종섭), 제헌과 정에서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와 결과(이영록),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의 문제(문준영), 한국전쟁과 형사법 -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한인섭), 비교법 연구에서 비교되는 법단위의 중층성과 복합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법철학자의 시각(김도균), 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함재학)이 실려 있다. 이 책의 끝에는 최종고교수의 자서적 논문 '體驗的 韓國法史學 : 還甲自述'과 이력 및 발표논문 목록이 실려있다.



[詩 쓰는 법학자]

최종고 교수의 문화사랑과 시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시집 '詩 쓰는 법학자'(관악)가 출간되었다. 최교수가 유럽, 미국, 하와이, 타히티, 중국, 몽골 등지를 방문할 때 썼던 시와 라트부르흐에 대한 연구에서 괴테와 다산에 대한 연구에 이르는 학문의 여정 중에 떠오른 시상을 적은 시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최교수는 이전에도 '법 속에서 시 속에서'(교육과학사)라는 시집을 발간한 바 있다. 회갑을 지난 후에도 "디케와 뮤즈를 따라갈 수 밖에..."라고 읊고있다.



법대초청강연

법대초청강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6년부터 격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법조계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서울 법대 초청 강연>을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법대 초청 강연은 법과대학 선배로부터 법학자로서의 진로, 법학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제8회	연사 : 이재후 서울법대동창회장/김&장 로펌 대표 변호사 주제 : 넓은 세상, 열정으로의 길 일시 : 9월19일(수)
제9회	연사 : 정성진 법무부장관 주제 : 법률가의 삶과 보람 일시 : 10월 17일(수)
제10회	연사 : 우창록(울촌로펌 대표변호사, 법대28회) 주제 : 법률가, 로스쿨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 2007. 10. 31(수)
제11회	연사 : 박병무(하나로텔레콤 사장, 법대80) 주제 : 법대생이여, 더 넓은 세상을 보자 *법률가가 한국 금융계의 신화를 만든 이야기 일시 : 2007. 11. 14(수)

2007년 2학기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 사업단은 법학연구분야에서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제적 관심사와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Foreign Authority Forum	
109회	07.08.29 北川善次 일본민법학의 역사와 이론
110회	07.09.13 Prof. Dr. Jurgen Kuhling 정보사회의 새로운 지식 제공자로서의 인터넷 검색엔진 독일 규제법상의 새로운 도전인가?
111회	07.10.26 Judge Randall Rader Patent Litigation in Korea - US FTA Era
112회	07.11.06 Roger Haines QC "국제난민법의 현대적 경향"
113회	07.12.03 이일형 교수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법과 문화 포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학기 중 매주 수요일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법학연구소와 BK21법학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은 그 동안 교수 집담회로 이루어지던 것을 2006년 3월에 법과 문화 포럼으로 개칭하였으며,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도 법학분야 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제14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자 양성' • 발표 : 최병조 교수 • 일시 : 9.19. (수)
제14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일본로스쿨의 빛과 그림자 • 발표 : 정종휴 교수(전남대 법대) • 일시 : 10.10(수)
제14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대형강의와 참여수업 -신임교수의 강의체험기 • 발표 : 권영준 교수 • 일시 : 10.24(수)
제14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법원의 역할 • 발표 : 윤진수교수 • 일시 : 10.31(수)
제14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해주는 e-Learning 교수법 • 발표 : 이해정 교수(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 일시 : 11.7 (수)
제14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삼성그룹 'X파일' 보도사건: 통신비밀 대 언론의 자유 2006.8.11선고 2006고합177 판결과 서울고법 형사9부 2006.11.23선고 2006노1725 판결의 비교 • 발표 : 조국 교수 • 일시 : 11.14(수)
제14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협상의 법경제학 • 발표 : 고학수 교수 • 일시 : 12.4(화)

최고지도자과정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제7기 과정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제7기가 수료했다. 이번 제7기 과정은 법조계 인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기업과 공기업 임원, 회계사와 의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9월 4일부터 강의를 진행하였다. 1월 22일의 논문발표회와 1월 25일에서 27일의 졸업여행을 마친 지금은 2월 19일의 수료식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학기에 이루어진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ALP7기 강의일정

09월 04일	"입학식, 호문혁 학장 특강"	로스쿨 어떻게 할 것인가?
09월 06일	장달중 사회대 교수	한반도 평화통일
09월 06일	최종고 법과대 교수	법과 정의의 상징
09월 11일	박삼욱 지리학과 교수	고령사회와 지식정보사회의 경제활동공간의 역동성
09월 11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09월 13일	윤영관 외교학과 교수	한반도에서의 북핵위기와 평화
09월 13일	윤진수 법과대 교수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09월 18일	박태호 국제대학원장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09월 18일	정상조 법과대 교수	"3만달러 시대를 위한 "기술과 법"
09월 20일	장재성 불문과 교수	서양문명의 정체성의 형성
09월 20일	한인섭 법과대 교수	형사사법과 인권분야에서 민주화와 법치화의 추세(1987-2007)
09월 27일	김난도 생활과학대 교수	사치의 소비학
09월 27일	김도균 법과대 교수	법치주의: 법의 지배 v. 법에 의한 통치
10월 02일	강광하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10월 02일	신동운 법과대 교수	신형사소송법 해설
10월 04일	김도한 자연대 교수	수학과 음악
10월 04일	조국 법과대 교수	민주화와 비범죄화
10월 06일	이철수 법과대 교수	노동법 (아외특강)
10월 09일	송광수 전 검찰총장, 김&장 교문변호사	형사사법의 현안과제
10월 09일	권오승 공정위원장	FTA 시대의 공정위 역할
10월 11일	서이중 사회학과 교수	10년 후 미래사회 변화와 인간관계
10월 11일	조홍식 법과대학 교수	How to Govern Risk
10월 16일	이인원 생명명공학부 교수	과학논문 작성
10월 16일	정인섭 법과대 교수	한국 외교와 국제법
10월 18일	백명진 미대 교수	영상특강 '광고와 Creativity'
10월 18일	박상근 법과대 교수	2007 大法院 商事 判例 4題
10월 23일	이동홍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황
10월 23일	김재형 법과대 교수	언론-인터넷-인격권
10월 25일	강남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도래
10월 25일	이상연 법과대 교수	협상의 원리
10월 30일	박우연 농생대 학장	대학 부속시설 혁신: NICEM 공동기기센터를 중심으로
10월 30일	남효순 법과대 교수	한국 가정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전환
11월 01일	김진규 의과대 교수	노화방지(부부특강)
11월 06일	권영준 법과대 교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6기 교류회)
11월 08일	박준 법과대 교수	최근의 회사법 개정 동향과 기업경영
11월 08일	이창희 법과대 교수	소득세제와 소득개념의 형성사
11월 13일	황준연 음대 교수	한국전통사회와 음악
11월 13일	양창수 법과대 교수	언론의 자유와 인격보호의 충돌
11월 15일	변창규 영어영문학 교수	Shakespeare와 Macbeth
11월 15일	박정훈 법과대 교수	韓流로서의 韓國의 法治主義와 民主主義
11월 20일	신희택 법과대 교수	해외투자 및 M&A현황과 시점
11월 20일	이근관 법과대 교수	한반도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1월 22일	허남진 철학과 교수	유교와 도교: 동아시아 사상의 근원
11월 22일	송옥렬 법과대 교수	기업의 경영권 승계
11월 27일	정필문 치대 전 학장	부부특강: 일이 통하는 굴 (얼굴) 왼쪽 얼굴로 승부하라
11월 29일	김광역 인류학과 교수	현대중국의 인류학적 이해
11월 29일	정중섭 법과대 교수	한국의 미래와 헌정 개혁
12월 04일	정근식 법과대 교수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 분석
12월 04일	이홍재 법과대 교수	노동조합법제정사의 법사회학적 조명
12월 06일	이효원 법과대 교수	남북통일 교류협력과 법률
12월 06일	이원우 법과대 교수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01월 15일	왕한석 사회대 인류학과 교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적응
01월 15일	석광현 법과대 교수	국제거래와 분쟁 해결
01월 17일	김화진 법과대 교수	국가안보와 대기업의 경영권
01월 17일	생낙인 주임교수	

최고지도자과정 홈페이지 개설

올해 1월 8일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현재 지속적인 보완 작업 중에 있으며, 과정 소개와 입학 안내를 비롯하여 학사정보 등 과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총동창회 및 게시판 등 과정 참가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alp.snu.ac.kr/>이다.

2008학년도 1학기 (ALP 8기) 모집 안내

법과대학에서는 올해 3월 4일부터 8월 29일에 걸쳐 매주 화, 목요일 7시~9시에 걸쳐 진행될 이번 최고지도자과정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소는 각각 '151-74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법대최고지도자과정'과 'snualp@snu.ac.kr'이다.

제출 서류는 입학지원서, 재직증명서, 회사 및 기관 안내책자 (비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재표)사진 2장 (3X4판) 등이며 별도의 원서대 및 전형료는 없다. 서류전형에 대해서는 2월 18일에 합격통지가 이루어지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2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에 걸쳐 면접 전형에 참가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 통지는 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alp.snu.ac.kr

2007년 법대 학술제



2007년 9월 7일부터 13일에 걸쳐 법과대학 학술제가 열렸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사법학회, 경제법학회, 형사법학회, 국제법학회의 순서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9월 7일 사법학회가 법과대학 학술제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아파트 건축에 따르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소음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을 다루었다. 결과는 재판부가 피고에게 원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9월 10일에는 경제법학회의 모의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SJ 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를 사안으로 꾸며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SJ 텔레콤에 대해 일부 시정 명령을 내렸다.

9월 11일에는 형사법학회의 형사모의배심재판이 열렸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에서 기초로 삼고 있는 배심제도는 이른바 '국민 참여 형사재판'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배심제이다. 이는 현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인이 배심제로 재판진행을 원할 경우 시행되는 제도로, 2007년 6월 1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9월 13일, 국제법학회의 모의재판 '그 많던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이 열렸다. 가상의 두 국가 간에 일어난 포경행위의 국제법위반 여부 논란과 포경에 반대하는 NGO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포경행위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위반하고, 불필요한 살상을 지속하고 포경행위를 방지한 점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크다고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보았고, NGO의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는 지원금을 준 정도의 관여 외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아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을축제

2007년 10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법대 축제가 열렸다. 축제 첫날에 자치도서관 도서전과 고기파티, 법대 농구부 3on3 예선과 자유투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에는 3on3 본선이 개최되었다.

제6회 법대 학장배 축구대회

이번회로 6회째를 맞는 법대 학장배 축구대회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숙사운동장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축구부(이하 법축)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는 작년보다 3개 팀이 더 많은 18개팀이 참여하였으며, 매직쌈바대작전 팀이 우승을, C2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